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위축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withdrawn

임재현,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ae-Hyun Lim(jaehyun@paran.com), Dong-Il Chun(loveu@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학교 및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위축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제13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 응답 중학생은 391명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학교폭력의 총효과였으며, 직접적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은 자살생각에 우울과 위축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폭력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은 자살생각에 우울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울과 위축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우울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위축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살생각에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울의 감소와 우울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학교폭력 예방과,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자살생각 | 우울 | 위축 | 매개효과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arental violence, and academic stres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through depression and withdrawn. For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13th wave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391 middle school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sing AMOS was used for this study. As results of the study, the biggest effect on the suicidal ideation was the total effect of school violence, and the direct effect was also significant. In other words, school violence is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depression and withdrawn on suicidal ideation. Parental violence was more indirect effect than 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parental violence i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rough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cademic stress was more indirect effect than 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and withdrawn on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academic stress i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rough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Withdrawn was not direct affect, bu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icid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re is a need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parental violence and academic stress, which are causes of depression.

■ keyword : | Suicidal Ideation | Depression | Withdrawn | Mediation Effect |

접수일자 : 2019년 08월 12일
수정일자 : 2019년 09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9월 29일
교신저자 : 전동일, e-mail : loveu@kangwon.ac.kr

I. 서론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률은 13.3%로 나타났는데, 2007년도 2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도에 11.7%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학년별로는 중3학년이 1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2학년이 14.6%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율도 2007년도에 5.8%에서 2015년도 2.4%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도에 3.1%로 나타났다. 중3학년의 자살시도율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2학년 3.7%, 중1학년 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평균 2.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1].

아동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많이 감소하고, 자살의 낮은 비율로 인해 자살이 일부 아동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아동은 청소년기 또는 성인이 되어서 자살을 계획하거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자살생각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2].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우울을 제시하고 있다[3-7]. 그러나 우울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교폭력, 학업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등에 의한 매개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5][8-16]. 즉, 우울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위축을 들 수 있다[17]. 위축은 비활동적이며, 말이 적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특성을 말한다[18]. 아동이 또래와의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위축될 때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우울과 위축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은 학업 및 학교생활 등의 스트레스[3][4][7][13][16][20]와 학교폭력 피해경험[5][6][8][11][17][21],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부모양육태도, 부모폭력[17][22][23]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되어지는 지나친 규제와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와 억압이 지속되고 일정 시기 내에 해소되지 못하면 심리·정서적 요인인 우울과 위축을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뒤르케임은宿命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을 지나친 규제와 억압에 의해서 미래가 무자비하게 제한되고, 욕구가 난폭하게 제압되는 사람의 자살이라고 하였다. 즉,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억압으로 인한 모든 자살이宿命론적 자살에 속한다고 하였다[24]. 즉, 아동을 신체적·심리적으로 억압하고 규제하는 학교생활 및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이 아동을 위축시키고, 우울을 느끼게 하는데, 부모나 학교의 지지가 없거나 고민을 해결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아동은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요인인 학교폭력,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요인인 우울과 위축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아동의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잠깐의 생각에서부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말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생각은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25]. 자살을 생각하는 3세~6세 아동들도 그러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리적 사건이 발

생활 가능성이 높다. 자살생각이 없는 우울한 아동의 사건 발생 비율이 61%인 것에 비해 자살생각을 가진 우울한 아동의 사건 발생 비율은 100%로 나타나서 아동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26]. 외국 대학생들의 유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의 위험은 9세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은 집단과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은 집단은 서로 명백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한다[2]. 즉, 아동기의 자살생각이 생애발달단계마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성인이 되어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생각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7].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성별,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폭력 피해경험, 가구소득 등 가족관련 요인, 그리고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 학교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21].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은 가족과 학교 환경 요인이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요인을 매개하여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11][13-17].

2. 학교폭력,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요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17][21].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심한 놀림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28], 학교폭력은 실제 자살행동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1].

두 번째 학교환경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20]. 학업스트레스는 아동기부터 학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 모델에 의해 낙인찍히는 교육제도를 지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동의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9, 30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

라는 입시경쟁이 극심하고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며, 학업스트레스는 자살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30].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3][15][16].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15], 부모-자녀의 애착의 문제[12], 부모의 양육태도[23], 부모의 삶의 만족도[22] 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숙명론적 자살과 같이 지나친 규제와 육체·정신적 억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아동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야기하여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살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9].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살위험이 3배 더 높았고[31], 자살생각의 위험은 3.1배, 자살시도는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폭력 피해경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 및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5].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36] 우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3. 우울, 위축과 자살생각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우울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가정 및 학교관련 요인들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선행연구[17]는 학교폭력과 자살생각

의 관계에서 위축이 완전매개 한다고 하였다. 위축은 아동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압력이 아동을 움츠려들게 하는 행동특성을 말한다. 즉, 학교폭력과 같은 억압적 요인이 아동을 위축시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1].

또한 아동이 혼자 있기를 선호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 고립되는 등의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위축과 불안이 빨리 해소되지 못하면 자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19][37]. 아동이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학교부적응 및 위축을 경험하고[38], 지속적인 피해경험은 일시적 피해경험보다 아동을 더욱 위축시키는데, 우울과 함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위축은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 혹은 외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재화된 행동이 관찰 가능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한다[17]. 그러나 위축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행동과 태도로 내적인 심리적 특성인 우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으로 인한 위축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위축이 지속될 경우 우울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해 자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 및 학교환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울과 위축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것이며, 또한 위축을 매개해서 우울에 영향을 주고, 다시 우울을 매개하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억압요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부모폭력 피해경험, 학업스트레스를 원인 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원인변수가 심리적 요인인 우울, 위축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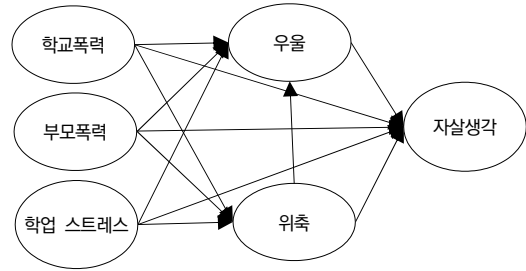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3차년도 자료 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시되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연명,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아동에 대한 부가조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한국복지패널 제13차년도 조사는 2018년도 2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총 93일) 조사되었다. 제13차년도 아동부가 조사는 제10차년도 아동 부가조사 응답자(조사대상 가구원 중 2015년 3월 초등학교 4,5,6학년제 재학 중인 아동) 또는 조사대상 가구원 중 2018년 3월 중학교 1,2,3학년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391명의 아동을 조사하였다[40].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자살에 대한 아동의 생각정도를 질문하였다. 측정된 문항은 현재의 자살생각 수준을 자기보고형식으로 측정하는 Reynold(1988)의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에서 구성된 것으로 자살생각 및 자살에 대한 의도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44]. 자살생각에 대한 질문은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살하

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0점, '지난 달 없다' 1점, '한 달에 1번' 2점, '한달에 2-3번' 3점, '일주일에 1번' 4점, '일주일에 2-3번' 5점, '거의 매일' 6점으로 측정되었다. 자살생각 변수는 6문항의 합으로써 응답범주는 0점에서 36점까지이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살생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79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학교폭력은 따돌림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놀리거나 조롱하기', '따돌리거나 무시하기',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협박이나 위협', '돈이나 물건 빼앗기', '때리거나 발로차기'의 지난 1년간의 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응답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문항에서 유효한 응답이 1%미만으로 나타나서 제외하고 4문항의 합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0점에서 12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575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로 지난 1년간의 아동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1문항, 정서적 학대 3문항, 방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유효한 응답이 없는 1문항과 1%미만인 2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의 합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0점에서 15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부모폭력 경험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폭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9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성적, 숙제나 시험, 대학입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에 관한 생각과 행동정도를 측정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4문항의 합을 최종 사용하였으며, 응답범주는 4점에서 16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2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우울 및 위축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의 생각 및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인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K-CBCL 척도를 사용하였다[18]. 전체 K-CBCL 척도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을 측정하는 5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해당하는 14개 문항과 위축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및 위축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아동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범주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문항의 합을 최종 사용하였으며 우울의 응답범주는 0점에서 28점이고, 위축의 응답범주는 0점에서 14점이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고, 위축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우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6이었으며, 위축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1이었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은 총 391명으로 남학생 197명(50.4%), 여학생 194명(49.6%)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중1학년이 118명(30.2%), 중2학년이 139명(35.5%), 중3학년이 134명(34.3%)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97	50.4
	여성	194	49.6
	총계	391	100.0
학년	중1	118	30.2
	중2	139	35.5
	중3	134	34.3
	총계	391	100.0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학교폭력은 평균 0.62점, 부모폭력은 평균 0.98점, 학업

스트레스는 평균 8.39점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우울은 평균 3.93점, 위축은 평균 2.47점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평균 2.32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폭력은 결측치가 있어 5사례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였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학교폭력	391	0.00	09.00	0.62	1.40
부모폭력	386	0.00	12.00	0.98	2.16
학업 스트레스	391	4.00	16.00	8.39	2.75
우울	391	0.00	23.00	3.93	4.48
위축	391	0.00	14.00	2.47	2.98
자살생각	391	0.00	35.00	2.32	4.85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값이 0.8 이상인 경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은 모두 0.8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학교폭력,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 우울, 위축 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학교폭력	부모폭력	학업 스트레스	우울	위축	자살생각
학교폭력	1					
부모폭력	.227**	1				
학업 스트레스	.218**	.275**	1			
우울	.372**	.263**	.408**	1		
위축	.279**	.186**	.310**	.524**	1	
자살생각	.258**	.196**	.235**	.434**	.431**	1

**p<.01

3.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1)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아동의 학교폭력 및 부모폭력 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위축과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MIN=1782.489 (df=725, p<.000), GFI= .819, TLI= .861, CFI= .871, RMSEA= .06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인 모델 적합도 기준에 조금 부족하지만 수용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21]. 물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모델의 일치성이 좋아서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델적합도가 기준에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모델을 좋은 모델적합도 기준에 맞춰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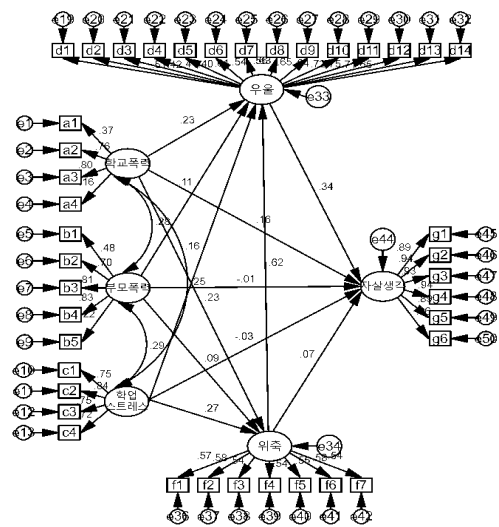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2) 경로모형 분석결과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우선 아동 자살생각의 매개요인으로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과 학업스트레스였으며 부모폭력은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위축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 자살생각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축이 학교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축이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아동 자살생각의 매개요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 위축이었다. 그리고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 위축의 완전매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위축과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폭력은 위축을 부분매개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아동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수	모수추정치	S.E.	C.R.
위축 (- 학교폭력)	.228(.235)**	.075	3.040
위축 (- 부모폭력)	.121(.086)	.092	1.313
위축 (- 학업스트레스)	.120(.270)***	.030	3.950
우울 (- 학교폭력)	.181(.231)***	.049	3.731
우울 (- 부모폭력)	.126(.111)*	.053	2.360
우울 (- 학업스트레스)	.057(.159)**	.018	3.243
우울 (- 위축)	.500(.619)***	.072	6.970
자살생각 (- 학교폭력)	.412(.162)*	.177	2.335
자살생각 (- 부모폭력)	-.050(-.014)	.205	-.242
자살생각 (- 학업스트레스)	-.033(-.018)	.068	-.481
자살생각 (- 위축)	.175(.067)	.274	.637
자살생각 (- 우울)	1.112(.343)**	.395	2.814

*p<.05 **p<.01 ***p<.001

3) 효과분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각각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학교폭력의 총 효과는

.307, 직접효과는 .162, 간접효과는 .145로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학교폭력은 자살생각에 위축과 우울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폭력의 총효과는 .049, 직접효과는 -.014, 간접효과는 .062로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에서 위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은 자살생각에 우울을 완전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의 총효과는 .102, 직접효과는 -.028, 간접효과는 .130로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에서 위축과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위축과 우울을 완전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위축의 총효과는 .279, 직접효과는 .067, 간접효과는 .212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에서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축은 자살생각에 우울을 완전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아동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교폭력 → 자살생각	.162	.145	.307
위축을 매개		.235×.067=.016	
위축과 우울을 매개		.235×.619×.343=.050	
우울을 매개		.231×.343=.079	
부모폭력 → 자살생각	-.014	.062	.049
위축을 매개		.086×.067=.006	
위축과 우울을 매개		.086×.619×.343=.018	
우울을 매개		.111×.343=.038	
학업스트레스 → 자살생각	-.028	.130	.102
위축을 매개		.270×.067=.018	
위축과 우울을 매개		.270×.619×.343=.057	
우울을 매개		.159×.343=.055	
위축 → 자살생각	.067	.212	.279
우울을 매개		.619×.343=.212	

아동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폭력의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위축의 총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의 직접효과, 학업스트레스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교 및 부모폭력의 피해경험, 학업스트레스를 설정하고,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우울을 통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모폭력과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우울을 통한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축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축은 학교폭력 및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영향도 상당하면서 우울과 위축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사건에 직접적이면서도 단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며[42], 학교폭력 피해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자아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래친구들과의 사회적 지지형성과 같은 환경적 개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8].

아동에 대한 부모폭력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위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우울을 통한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폭력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였으며, 오히려 김은영(2014)의 연구에서 부모애착이 낮은 아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함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11]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4]. 따라

서 부모가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학업스트레스의 부담을 덜어주어 우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애정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16], 부모와 교사도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입시 성적만을 강조하기보다 아동들이 학교 수업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공부의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한다[43].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대한 매개변수로 위축을 설정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해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7]에서 위축이 학교폭력과 자살생각에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난 결과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위축이 우울을 완전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가 학교폭력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에 위축만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우울과 위축을 동시에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위축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울을 완전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의 측정도구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자살생각여부인 이항변수로 측정할 경우 대다수는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 정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과 자살의도, 자살계획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리커트형 척도인 Reynold(1988)의 자살생각척도(SIQ)[44]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SIQ척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성을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살척도들의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석결과가 측정도구의 영향을 배제하

기 어렵다.

둘째, 자살생각이 자살을 예측하는 기초단계이지만, 자살생각이라는 내적인 현상을 양적인 자료만을 통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자살생각과 학교폭력, 부모폭력 자료에서 이상치(outlier)가 발생하여 이상치의 처리방법에 의해 조치한 후 통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신뢰도(Cronbach's α)가 적정범위(.7이상)이하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의 질문은 현재 변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항들이며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에 따른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1] 질병관리본부,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2018.

[2] N. Bolger, G. Downey, E. Walker, and P. Steininger, "The Onset of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8, No.2, pp.175-190, 1989.

[3] 조인숙, 채철균, "대도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제2호, pp.45-55, 2016.

[4] 박순희, 양정남, 최은정,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제22권, 제5호, pp.301-323, 2015.

[5] 이규현, 권윤희,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820-828, 2014.

[6] 김갑숙, 박치홍,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115-130, 2015.

[7] 김윤정,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29-444, 2011.

[8] 이웅택, 이은경, "중학생의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제48권, pp.62-85, 2016.

[9] 김지영, 이경희,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45권, 제5호, pp.752-760, 2015.

[10] 추경진, 최종옥,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제22권, 제4호, pp.83-103, 2015.

[11] 김은영,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관계 검증연구: 일반기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pp.93-116, 2014.

[12] 윤태희, 조영일,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중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7권, 제3호, pp.61-90, 2014.

[13] 최인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219-243, 2014.

[14] 강주현, 신택수,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5호, pp.27-51, 2015.

[15]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83-107, 2011.

[16] 박재연, 정익중,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문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2호, pp.69-97, 2010.

[17] 남석인, 남보영, 장은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4호, pp.57-80, 2014.

[18]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앙적성연구소, 1998.

[19] J. L. Rubenstein, T. Heeren, D. Housman, C. Rubin, and G. Stechler,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9, No.1, pp.59-71, 1989.

[20] 김성현, 주동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제23

- 권, 제3호, pp.569-583, 2016.
- [21] 이유나, 신소라,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pp.189-216, 2016.
- [22] 김선숙, 정정호,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257-267, 2016.
- [23] 최은희, 조택희,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152-162, 2016.
- [24] E.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897, 김명희,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宿命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6호, pp.288-327, 2012, 재인용.
- [25] R. Uddin, N. W. Burton, M. Maple, S. R. Khan, and A. Kha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in 59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population-based study,”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Vol.3, No.4, pp.223-233, 2019.
- [26] L. Hennefield, D. J. Whalen, G. Wood, M. C. Chavarria, and J. L. Luby, “Changing Conceptions of Death as a Function of Depression Status, Suicidal Ideation, and Media Exposure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58, No3, pp.339-349, 2019.
- [27] E. F. Dubow, D. F. Kausch, M. C. Blum, J. Reed, and E. Bush,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pp.158-166, 1989.
- [28] 이유나, *학교폭력 피해-가해 중첩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9] P. A. Davies, *Suicidal Adolescent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83, 이정윤, “자살생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문제행동, 자기존중감, 사회성 기술,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163-175, 2004, 재인용.
- [30] 이정윤, “자살생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문제행동, 자기존중감, 사회성 기술,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pp.163-175, 2004.
- [31] D. F. Perkins and K. R. Jones,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Vol.28, No.5, pp.547-563, 2004.
- [32] A. B. Berenson, C. M. Wiemann, and S. McCombs,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Vol.155, No.11, pp.1238-1242, 2001.
- [33] 이기별, 주해원, 현명호,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제2호, pp.21-36, 2015.
- [34] 최윤정,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분석: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307-333, 2012.
- [35] 장용환, 송지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pp.80-104, 2011.
- [36] 이석희, 김경희, 김지수, 김기숙, “중학생의 성격특성, 아동기 학대경험 및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86-394, 2012.
- [37] D. B. Kandel, V. H. Raveis, and M. Davies,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0, No.2, pp.289-309, 1991.
- [38] 윤소영, 유미숙,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 제14권, 제4호, pp.59-75, 2011.
- [39] 김현숙,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 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121-143, 2013.
- [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지침서(User's Guide)*, 2019
- [41]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6.
- [42] 최수미, “외상 사건 후 PTSD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

입 및 모델의 동향분석,” 상담학 연구, 제16권, 제3호, pp.537-556, 2015.

[43] 정익중,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127-166, 2007.

[44] W. M. Reynolds,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1988.

저 자 소 개

임 재 현(Jae-Hyun Lim)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조사방법

전 동 일(Dong-Il Chun)

정회원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자료분석